아산과 신항리

아산(牙山)은 전통적으로 오도된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이 강한 곳이었다. 동시에 사회적 책무가 강했던 조선 사대부가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곧 '저항과 책임'의 정서가 함께 공존했던 곳으로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화운동(開化運動)의 출발지였다.
윤보선(尹潽善)의 '저항과 사대부적 책임 의식'은 여기에서 나왔다.

해평윤씨 윤보선

"시간이 지나면 조선도 문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천만 겨레들도 언젠가는 자유에 대하여 말하며 자유를 누릴 것이다."

구한말 개화 선도자였던 해평 윤씨(海平 尹氏) 좌옹 윤치호(佐翁 尹致昊)는 이렇게 외쳤다. 그에게 개화는 '**자유, 문명, 인간화**'였다. 곧 한국을 근대적 시민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윤씨 문중의 의무가 되었으며 해위 윤보선(海葦 尹潽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이었다.

← **조부 윤영렬(尹英烈)과 정부인 조모 한진숙(韓鎭淑).**
윤보선의 조부는 육군 참장으로 삼남 토포사(三南討捕使)를 지냈으며, 조모는 정부인의 봉작(封爵)을 받았다.

부친 윤치소

안동교회 장로이었던 부친 치소(致昭)공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한 민족자본가요 대사업가였다. 윤치호(尹致昊)를 도와 민족운동을 후원하였고 3,000원의 거금을 상해임시정부에 헌금하여 아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가 평생에 사업으로 모은 재산은 후일 아들 윤보선(尹潽善)의 민주화 운동의 자금이 되었다.

→ **윤보선의 아버지(윤치소)와 어머니(이범숙).**
윤보선은 1897년 8월 26일 충남 아산군 음봉면 신항리에서 6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상해 임시정부의 윤보선

바다 갈대같이 유연하나 굿굿하라는 '海葦'라는 호는 예관 신규식 선생이 지어 주었다. 신규식은 각 독립운동 조직을 모아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법무총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신규식은 해위에게는 한 집안같은 스승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승만, 안창호, 이동휘 등 각 계보의 갈등이 내분화되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으며 윤보선이 유학의 길을 선택한 때가 바로 이즈음이었다.

신규식(申圭植)
임정 법무총장

이동녕(李東寧)
임정 의정원 의장

신익희(申翼熙)
임정 내무부장

유학시절

윤보선(尹潽善)은 영국에서 순수 학문으로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 주는 학문"이라 믿었던 고고학(考古學)을 전공으로 택했다. **'인간화'**의 문제는 해평 윤씨 윤보선이 이루어야 할 **평생의 명제**였다.

에딘버러 대학졸업사진

해방 후 활동시작

귀국후 집안에 칩거하던 윤보선(尹潽善)은 해방이 되자 군정청 농상국 고문직으로 봉사하였고, 정부수립이 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정당인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1948

정부수립과 윤보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은 윤보선(尹潽善)을 초대서울시장에 발탁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상공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해위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보선과 이승만

해위 윤보선(海葦 尹潽善)은 이승만(李承晩)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통치방식을 거부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52년 5월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승만과 결별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독재타도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을 계속하게 되었다.

민의원시절 윤보선

유석 조병옥(維石 趙炳玉)이 제 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망한 뒤 민주당 구파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를 받았다. 그것은 고위 관료로서의 경험, 그의 가문의 업적, 높은 인격과 윤리적인 삶이 그 이유였다.

▶ 민주당 간부회의 3 · 15부정 선거를 규탄, 서울 순화동 부통령 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윤보선씨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

1960년 8월 13일 윤보선(尹潽善)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大統領)이 되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 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다.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견지했다. 군사정부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는 헌법에 부여된 그의 책무를 끝까지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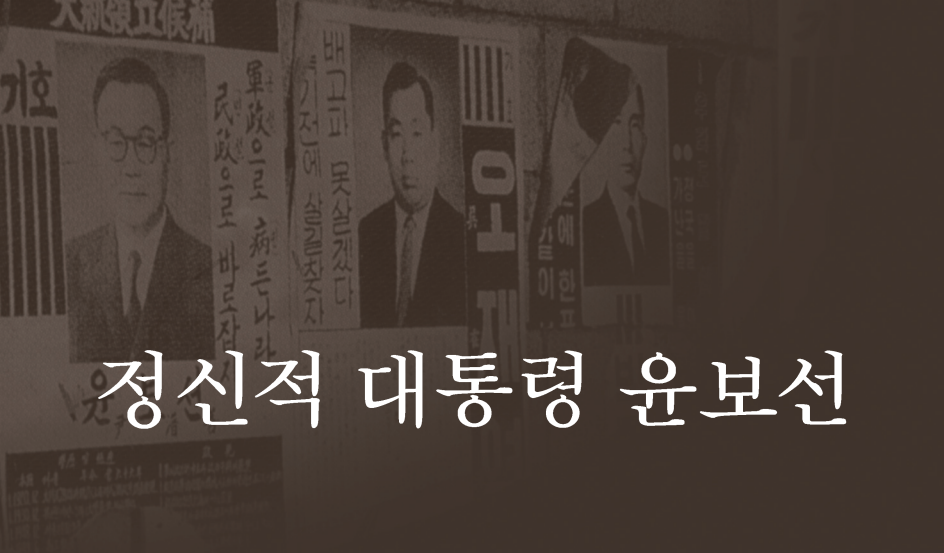
윤보선과 장면

제2공화국을 세웠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내부적 갈등을 겪었다.
한국민주당을 계승한 구파의 지도자였던 대통령(大統領) 윤보선(尹潽善)은 장면(張勉)이 이끄는 신파 내각으로부터 일정 부분 외면을 받고 있었다. 구파와 신파, 계파간의 갈등은 군부 쿠테타의 빌미가 되었다.

윤보선과 박정희

박정희(朴正熙)와 윤보선(尹潽善)과의 갈등은 첨예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귀결되는 일본식 근대화를 표방했다면 윤보선은 영미식 근대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의 근원은 바로 이 문제였다.

박정희 신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윤보선대통령을 예방해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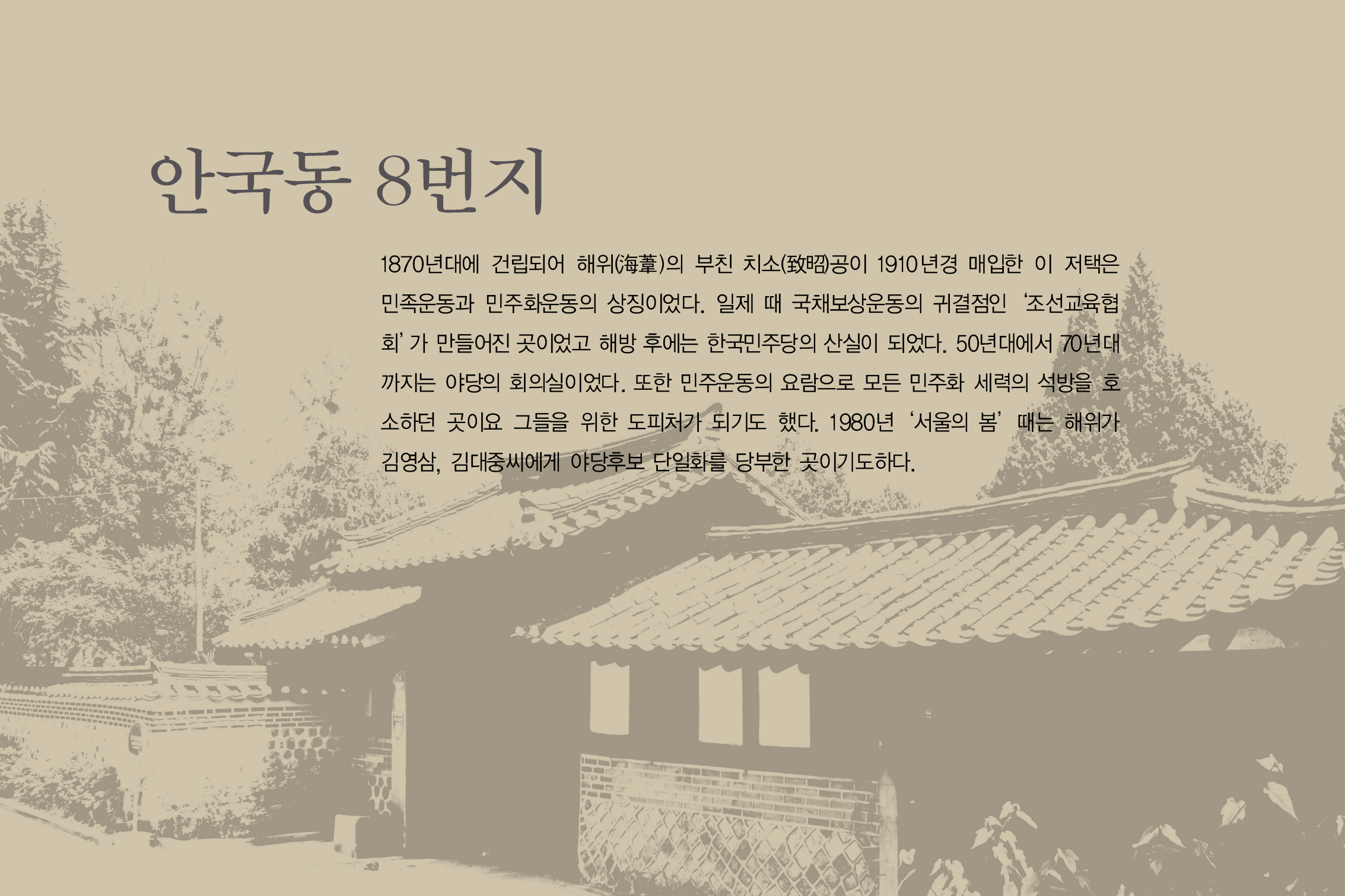
정신적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후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해위는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15만6천 표차로 낙선하였다. 이 때 그의 지지자들은 해위를 가리켜 “정신적 대통령”이라 이름 붙였다. 부정선거로 인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

해위(海葦)는 쉴 새 없이 저항했다. 불의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을 하였던 것이다. 유신체제를 거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재야운동의 실질적 지도자였으며 존재 그 자체였다. 그의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은 김영삼(金永三)과 김대중(金大中)에게로 이어졌다.

안국동 8번지



1870년대에 건립되어 해위(海葦)의 부친 치소(致昭)공이 1910년경 매입한 이 저택은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 일제 때 국채보상운동의 귀결점인 '조선교육협회'가 만들어진 곳이었고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의 산실이 되었다.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야당의 회의실이었다. 또한 민주운동의 요람으로 모든 민주화 세력의 석방을 호소하던 곳이요 그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기도 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해위가 김영삼, 김대중씨에게 야당후보 단일화를 당부한 곳이기도하다.

공덕귀 여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인도 선교사를 꿈꾸었던 여사는 서른 아홉이던 1949년에 꿈을 접고 해위와 결혼했다. 정치에는 일절 참견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인권 유린에는 담대히 저항했다. 안국동 8번지의 안주인이었던 여사는 저서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의 제목처럼 70년대와 80년대, 그 시대가 만들어낸 수많은 양심수들, 또한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의 대모(代母)였으며 보호자였고 대변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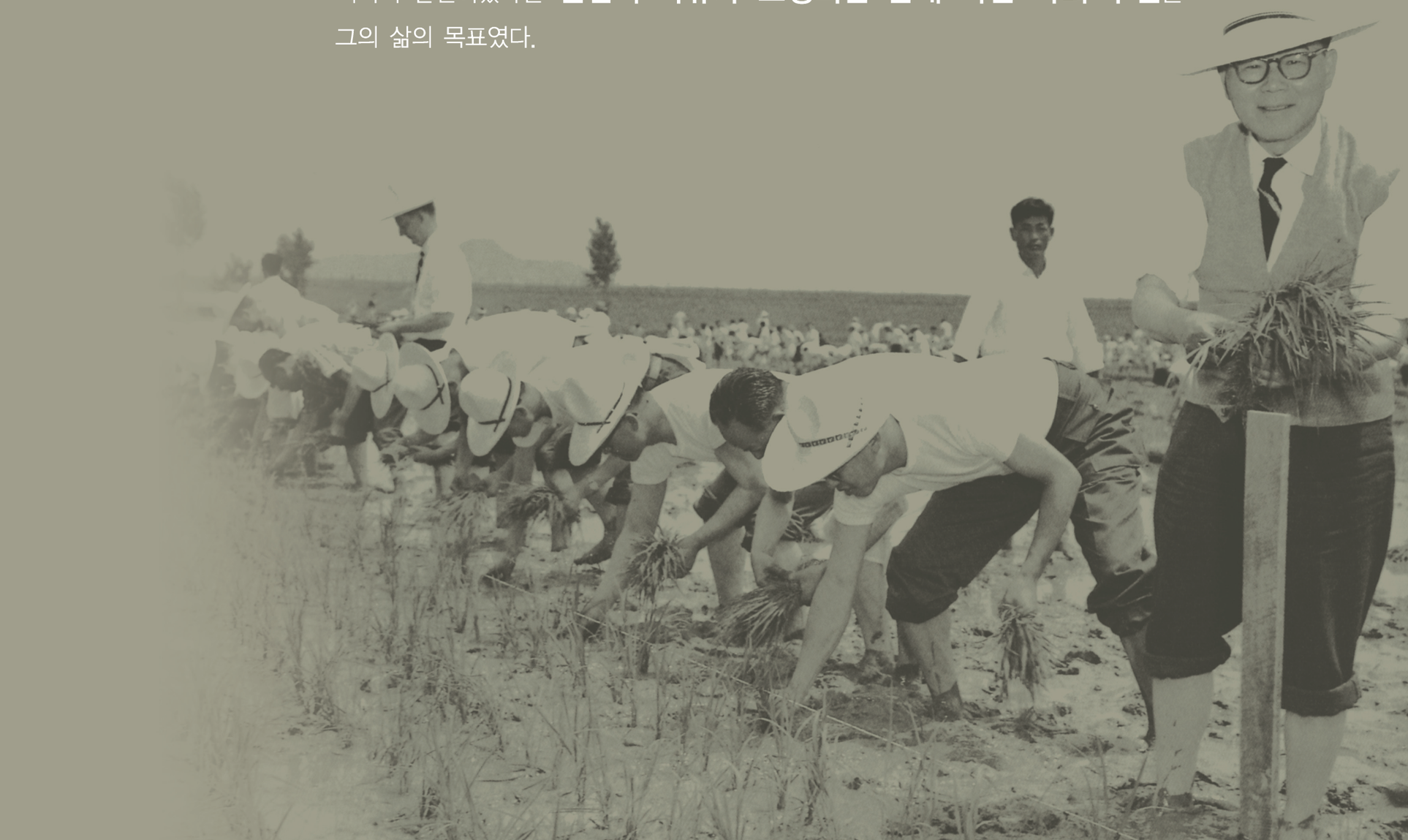
윤보선, 사대부가의 마지막 정치인

1990년 7월 18일, 여생을 마친 해위는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다. 가족장을 고집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다. 해위를 끝으로 더 이상 한국 사대부가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는 막을 내렸고 그런 정치가도 더 이상 없었다.

한국의 사대부가에서는 신분과 인격에 상응하는 충군(忠君)과 애국의 사회적 책무를 가르쳤었다. 사대부들은 관료로 등용되어 경세치인(經世治人)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준엄한 비판정신으로 시대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인(哲人)으로 존재했었다.

해위의 민주화 이상

해위(海葦)는 언제나 "상식"을 이야기 했다. 그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 곧 서구의 시민사회를 의미했다. 그의 삶의 여정이 저항과 책임 의식의 발현이었다면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근대 시민 사회 구현**은 그의 삶의 목표였다.



윤영렬(尹英烈)

윤영렬(1854-1939)은 구한말의 무관으로 강계부사 겸 방어사, 삼남토포사 등을 지낸 후 육군 참장에 올랐다. 청주 한씨 진숙(鎭淑)과 결혼했다. 한진숙(韓鎭淑)은 구한말 전라도 관찰사와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육군 참장 한진창(韓鎭昌)과 남매지간이었다. 슬하에 6남 3녀를 두었다.

윤치오(尹致昨)

윤영렬의 장남 윤치오는 일본 게이오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외국어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국어 교사로 일했다. 귀국 후 대한제국 학부 학무국장, 중앙학교 교장을 지냈다. 한말 워싱턴 주재 대리공사를 지낸 김윤정(金潤晶)의 딸 김고려와 결혼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양장(洋裝)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윤일선(尹日善)

윤치오의 장남 윤일선은 한국 병리학을 선도한 의학계의 태두이다. 쿄토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후, 1927-1945년 세브란스의전 병리학 교수로 일했다. 1946년 서울대의 창립과 함께 대학원장에 취임했으며, 1956-1961년 성울대 제6대 총장을 지냈다. 그 후 원자력원장, 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학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윤치소(尹致昭)

윤영렬의 차남 윤치소는 1898년 사촌형인 윤치호와 함께 황성신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성신문을 창간해 경영했다. 1910년대에는 당시 대표적인 한국인 회사로 손꼽혔던 경성직뉴(京城織紐)의 사장이 되었다. 이 회사는 후일 인촌 김성수(金性洙)에게 양도되어 경성방직 설립의 발판이 되었다. 1920년 6월 이상재(李商在) 등과 조선교육회 설립을 주도해 창립 이사가 되었다. 안동교회 장로로 기독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컸다.

윤보선(尹潽善)

윤치소의 장남인 윤보선은 영국 에든버러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다. 정부수립 후 초대 서울시장, 제2대 상공부장관, 3-5대 의원을 거쳐 1960년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선도했다. 윤보선은 민영환의 6촌인 민영철의 딸 민씨와 결혼해 두 딸을 두었고 사별한 후, 한신대 교수 공덕귀(孔德貴)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윤완구(尹玩求), 윤완희(尹琓姬)

윤보선의 장녀 윤완구는 경성제대 출신의 남흥우(南興祐)와 결혼했다. 남흥우는 형법학계의 권위자로 고대 법대 학장과 학술원 회원을 지냈다.
차녀 윤완희는 화가였는데, 상하이 임시정부 법무총장을 지낸 신규식(申圭植)의 아들 신준호(申俊浩)와 결혼했다.

윤상구(尹商求), 윤동구(尹同求)

윤보선의 장남 윤상구는 1949년 서울 출생.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5년 뉴욕 주 시라큐스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76년부터 8년 동안 LA에서 의류업에 종사했다. 83년 귀국해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주)동서코포레이션을 설립 운영한다. 국제로타리 총재로 활동하였고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장이기도 하다. 현재 안동교회 장로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0년 양은선과 결혼했고 1남1녀를 뒀다.
차남 윤동구는 미국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공부했고 설치미술가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이다.

윤치영(尹致映)

윤영렬의 6남 윤치영은 일제하에 미국으로 건너가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1936년 귀국해 흥업구락부와 YMCA에서 활동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정부수립 후 초대 내무부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공화당 의장을 지냈다.

윤완선(尹浣善), 윤원선(尹源善), 윤한선(尹漢善), 윤택선(尹澤善), 윤형선(尹瀅善), 윤예경(尹禮卿), 윤의경(尹義卿), 윤계경(尹桂卿)

윤치소의 차남 윤완선은 교토제대 출신으로 한말 탁지부대신을 지낸 이용직(李容稙)의 사위이자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자결한 충정공 조병세(趙秉世)의 외손주 사위이다.
3남 윤원선은 도쿄 농대 출신으로 제2공화국 당시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대원군의 증손주사위이기도 했다.
4남 윤한선은 일제하 경상도 갑부 김기태(金基邰)의 사위였다.
5남 윤택선은 숙부인 윤치병의 양자가 되었다. 6남 윤형선은 게이오대학을 졸업했다.
윤치소의 장녀 윤예경은 이화여전 출신으로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한 이능섭(李能燮)과 결혼했다. 이능섭은 정부수립 후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장을 지낸 홍승면(洪承勉)은 윤예경 부부의 맏사위이다.
윤치소의 차녀 윤의경은 세브란스의전 교장을 지낸 한국 의학계의 대부 오긍선(吳兢善)의 아들인 오진영(吳震泳)과 결혼했다. 오진영은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국학대 교무처장, 주일대표부 상무관 등을 역임했으며, 1953년 안양기독보육원장 이사장에 취임했다.
윤치소의 3녀 윤계경은 이화여전 출신으로 도쿄농대 출신인 이재영(李宰寧)과 결혼했다. 이재영은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李丙燾)박사의 장형인 이병묵(李丙默)의 아들이다.

연 보

1897년 8월 26일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에서 출생
1910년 서울 교동보통(초등)학교 졸업
1912년 일출학교 졸업 후 일본 동경 경응의숙 유학
1914년 중국 신해혁명에 자극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키로 결심하고 귀국 (17세)
1918년 상해 임시정부의 최연소 정원의원으로 활동
1921년 신규식, 이시영, 신익희선생의 권유로 영국 유학을 결심 영국으로 건너가
글래스고와 우드부룩 대학에서 각 1년씩 수학
192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소재 에딘버러대학에 입학 고고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
1932년 부친의 독촉에 독립운동을 위해 미국을 가려던 뜻을 접고 귀국.
집에서 칩거하며 광복까지 은둔생활 함.
1945년 해방직후 송진우, 김성수, 백관수, 김병로, 조병옥, 김준연, 장택상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정당인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
1948년 정부수립 후 서울시장에 취임. 신생활운동 전개
1949년 상공부장관으로 취임
1949년 공덕귀 여사와 결혼
1950년 6.25 사변 발생 후 적십자사 총재로 발탁됨.
1952년 정치파동 이후 이승만 박사와 결별 야당생활 시작함.
1954년 민주당 공천으로 종로구에서 제3대민의원에 당선됨.
1959년 4대민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1960년 8월13일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취임. 경무대를 청화대로 개칭. 청와대 개방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하야 성명 발표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인정 된 국가의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야의사를 번복하게 됨.
1962년 3월 22일 혁명세력과의 갈등을 빚다가 정치정화법문제로 대통령직을 사임함.
1963년 민정당 창당.
군정연장반대운동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제 5대 대통령 선거 출마.
15만6천 표차로 패배.
1965년 대일굴욕외교 반대 단식투쟁 및 국회의원직 사퇴.
1967년 신한당 창당. 제 6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
1974년 '민청학련사건' 배후로 징역 15년 구형, 거주제한명령받음.
1976년 김대중 함석헌등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 발표.
1977년 3.1 민주선언 발표
1979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발족. 함석헌, 김대중과 공동의장에 취임.
'YMCA 위장결혼 사건' 배후로 2년 징역 선고받음.
1980년 김영삼, 김대중 화합을 주도 했으나 실패 후 정치에서 물러나
본인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정원사 노릇하다
1990년 7월 18일 영민
가족장으로 충남아산에 있는 가족묘지에 안장함.